



허정림 | 이화여자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 환경공학박사 /
집이 우리를 죽인다! 저자
(jr529@naver.com)

하천이야기 9 강처럼 살아가기

세상을 보는 눈이 비로소 생기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익히게 되니 문득 강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강처럼 사는 것은 무엇일까? 유년기는 잔잔하고 아기자기 한 시냇물이고 청춘의 젊음 시절은 역동적인 바다라면 중년에 접어들면 고요하고 정막하기 까지 한 강과 아주 닮아 있지 않을까?

어린 시절 즐거움이 묻어나는 재잘거리고 깔깔대는 시냇가의 정겨움은 아이의 웃음이 햇살에 부딪치는 은파처럼 눈부시게 아름답다. 누구나 추억 속 책갈피의 어느 언저리엔 유년기 시냇가의 추억 하나쯤은 챙기고 있으리라. 깨복쟁이 친구들과 여름날 까맣게 타도록 종일 놀던 일, 작은 피라미를 쫓고 무거운 바위를 킁킁거리며 들어 올려 가재의 보금자리를 쟁탈하고 지쳐 힘들면 바위에 걸터 마치 잘 못 올라 온 망둥어가 말라 붙어 있듯 바위에 착 달라 붙는 노곤함에 맞난 낮잠을 청하곤 했었다.

나는 도시출신이었어서 늘 방학 때 운 좋게 시골 할머니 댁에 머무는 여름방학이 되면 늘 설레었다. 서울에서는 기껏해야 운동장이나 동네 뒷산에서 아카시아를 따던 추억도 아주 티끌처럼 모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늘 실망을 주지 않는 새로운 경험과 마치 도발적인 모습으로 까지 느껴지곤 했던 전투적인 놀이의 다양함을 지닌 시골친구들과 놀 생각을 하면 그랬다.

낮선 이방인인 서울아이를 결코 선뜻 쫓아 주기 보다, 눈빛으

로 약간 의기양양하게 여유로움을 보이며 자리를 내어주고 놀이를 참관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시골친구들은 늘 호기심어린 눈으로 나를 반겨주었다. 여름날의 그들은 강이라고 하는 자연이란 놀이터를 유유자적하며 즐기고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골친구들이 자연과 동화되어 그 어떤 어색함도 없이 자연스럽게 노는 것을 보면서 이 방인으로서의 나는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들과의 괴리감을 떨쳐 내고자 열심히 따라가고 놀이에 집중하고 함께 하면서 여름이 무르익듯 하얗던 도시풍의 내 얼굴도 눈동자와 이를 빼고는 까맣게 그을릴 때 쯤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시골친구가 좋고 그들의 놀이가 부러웠다. 으레 그렇듯 물가에서 놀면 쉬 배가 고파오고 그럴 땐 누군가 꼭 어느 집 수박이며, 참외를 서리해 오고, 서울서 온 친구를 준다면 집 부엌 부뚜막에 올려 둔 아껴 두었을 감자며 옥수수도 가져 오곤 했다. 물론 이런 먹을 것들은 전리품처럼 시냇가 평평한 돌 위에 차려지고 누구랄 것도 없이 하얀 이를 들어 내며 나눠 먹는 순간이 참 행복했다.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는 맛은 순옥이라 기억되는 아이가 해 준 팔각국수이다. 그 날도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이고 여름에 반드시 해야 할 물놀이를 원 없이 하던 날이었는데 느닷없



이 오늘 저녁은 자기 집에서 하자며 나를 이끌고 초대를 했었다. 그 아이의 집은 우리 외갓집 뒷산을 넘어 있는 작은 초가 집이었다. 그 아이는 마당에 커다란 솔을 달아 놓고 열심히 무언가 휘저으며 나를 반겼다. 사실은 난 그 모습이 참 낯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아이의 엄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으려나 했던 기대와 달리 친구가 직접 무엇인가 만드는 모습이 참 생소했다. 내 또래의 아이가 밥을 하다니! 어쩌면 문화적인 충격일 수도 있었다. 분주히 마당과 밖으로 열린 주방 문 사이를 오고가며 여름 날 늦오후의 더위도 아랑곳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했다. 간혹 눈이 마주치면 금방 된다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내 온 친구의 저녁상은 참으로 초라했다.



마당 한 가운데 있던 평상위에 둥그런 낮은 상 위에는 지저분하게까지 느껴지는 궁색한 그릇에 담긴 김이 모락

모락 나는 붉은색의 팔각국수 한 그릇이었다.

“어여 묵어봐라! 이것 맛나니께!”

“어~~어 그래! 그렇게!”

내 대답이 떨어가기가 무섭게 그 아이인 하얀색 가루를 듬뿍한 수저는 넣어 휘휘 저어 주었다.

휘둥그레 얼굴을 쳐다보며 난감해 하는 나를 보며 그 아이 배시시 웃었다.

“걱정하지 말드라고! 이거 사카린인데 달달하고 맛나여!”

알겠다는 듯, 머리를 조아리며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듯 첫 술을 뜨는 순간,

“앗! 뜨거워! 와우~ 달아!”

“까르르~~갈갈!”

친구는 재밌다는 듯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야! 니 침 묵어봤나? 그것이야 음매나 뜨거운지도 몰랐나? 오매 헛바다 흘러당 다 디벼렸잖다!”

배시시 웃음으로 맺구하곤 나는 미지근한 멍멍한 대접에 담긴 물로 얼얼한 성난 입 속을 달래면서 한 그릇을 모두 비웠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달달해서 쓴 맛마저 느껴졌던 그 팔각국수는 그릇이 비워 질 수록 마음의 슬픔이 차 올랐던 것 같다. 난 왠지 그때는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자꾸 슬퍼지고 눈물이 그렇거던 기억이 난다. 그 한 그릇의 팔각국수가 이토록 슬프기도 하다는 사실을 나도 철이 들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פות이 알 듯 했다.

나 태어나 처음으로 친구가 직접 나를 위해 만들어 준 저녁이라는 의미 이상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마음 속에서 흔들렸던 것 같다. 이렇게 친구를 위해 직접 밥을 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어쩌면 철이 다 들어 버린 친구



를 보면서 나는 같은 또래임에도 마냥 어린이었던 나의 작기만 한 존재감이 창피하기도 하고 또한 미안하기도 했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랑 동생이랑 살고 있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미안하구면. 시골엔 맞난 것 같게” 차려 줄 것이 없당께! 그라도 나가 팔칼국수는 쪼개 끓일 줄 안당께!”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적어도 그 때 그런 심정이었다. 달달한 팔칼국수의 맛과 어쩌면 쓰기까지 했던 사카린처럼 말이다.

지금 주부경력 20년이 넘는 나도 엄두가 안 나는 음식! 그 손 많이 가고 비로소 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팔칼국수! 손으로 여러 번 치대며 밀가루를 반죽하고 아랫목에 넣어 두었다가 비닐에 넣어 발로 푹푹 밟아 쫄득이게 만든 후, 커다란 나무 도마에 척척 밀가루를 경쾌하게 뿌리고 둔탁한 칼로 거칠게 썰어 삶은 칼국수를 진한 팔물에 넣어 끓임없는 정성이 깃 들이게 손으로 쉼 없이 저으며 끓여내야 비로소 한 그릇의 팔칼국수가 되는 귀찮고도 귀한 음식! 바로 그 여름날 땀으로 범벅되어야 비로소 만들어 지는 힘들고 어려운 음식을 기꺼이 만들어 준 그 친구의 정성이 더 귀하고 고맙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 잔잔히 강물처럼 마음 속에 다시 흐른다.

젊은 시절은 남들 처럼 나도 넘실대는 바다처럼 늘 무엇인가 열망했고 햇살은 뜨겁듯 열정이 넘쳤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서툴고 부서지는 파도처럼 헤어짐의 슬픔도 그렇게 아렸건

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젊은 시절의 추억거리이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어쩌면 역시 늙어가며 열정도 감정도 무뎠지는 낯선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염려스럽기조차 하다.

지평선의 뒷 편이 무엇일지! 설레이며 하루하루 먼 바다를 향해하듯 내 인생의 항로를 수정하고 좌절하고 고뇌하고 또 도전하던 젊은 나의 시절은 어쩌면 헤밍웨이 소설 속 노인처럼 고독했음지도 모른다. 누구나 젊은 시절은 열정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자기의 인생에 설렘이었으리라! 넘실대는 바다처럼 격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깊은 심연처럼 끝없는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며 고뇌했으리라!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나의 젊은 시절은 그러했었다.

강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강처럼 늙어가는 일 일게다. 나는 간혹 여적 바다처럼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 괜스리 살짝 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감정의 기복이 바다처럼 넘실대고 철석이는 파도처럼 격정적인 열망도, 속을 알 수 없는 깊고 깊은 속내조차도 그냥 싫어진다. 한편은 젊음의 패기를 잃지 않는 모습이 부러울 법도 한대 말이다.

그렇게 늙어 가는 사람들은 웬지 지금껏 살아 온 자신의 인생에 자긍심인지 아닌 자신의 틀에 박혀 웅심 박힌 편견으로 가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고집스러움과 여유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 웬지 그건 아닌데 싶어지는 건 젊은 시절에 한때는 흑

1) 곁게-절라도 시투리로 음식을 여러 종류 다양하게 많이 차리는 것을 의미



백논리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내 판단을 과신하던 나였지만 지금은 부끄럽기까지 느껴지기 때문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잘난 놈도 있고 느리게 가는 놈도 있음을 알게 되듯, 세상 사 모두 자신의 잣대로 사는 것은 편견덩어리로 고립되어 사는 기품 없는 싸구려 처럼 느껴진다.

늙어 간다는 것은 살면서 배우게 된 다양한 삶에 대한 존중과 겸손과 관용을 통해 편견을 버리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고집의 성을 쌓고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은 외롭고 슬플 것 같다. 또한 자신을 상처내는 것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독이 되어 아픔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식이 잘해도 유리성처럼 깨져 버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허망한 꿈일 것만 같다. 가짜일 것만 같다.

젊거나 늙거나 자신에겐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습은 자신만이 만들어 가는 자신만의 작품이기에 늘 새롭고 또 반듯하게 늘 갈고 닦아 가면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하기에 남에게는 살아가면서 늙어 가면서 조금씩 관대해 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늙어 간다는 것은 자칫 자신의 경륜으로 인해 더 편견의 틀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견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은 관대함이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은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것일까?

늙는다는 반증일까? 그렇다. 난 그냥 늙어 가고 있는 지금, 자연스럽게 눈에 힘이 빠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뜨거운 열정도 없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따듯하고 여유 있고 이해심이 넘실대는 평화로운 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믿는다.

결국 난 바다처럼 늙는 것보다 강처럼 살고 싶다. 어쩌면 초라하고 소박하게 그렇게 물 흐르듯 인생의 돛단배를 띄우며 넘실넘실 나를 맡기고 흐르고 싶다. 비록 광대하고 걱정적이고 원대하지는 않더라도 고요하고 잔잔히 흐르고 싶다. 소소한 일상의 잔잔함을 느끼고 싶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내 삶의 종착지에 다다르겠지. 그때 내 삶의 끝자락에 함께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얼마나 있어 주는가가 내 삶의 무게이겠지.

많은 이가 없어도 좋다. 잘나고 폼나는 이가 없어도 좋다. 다만 나를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애이는 그리움으로 내 이름을 불러 줄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인생을 잘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거다. 그렇게 강물이 흐르듯 인생을 살다간, 고요하게 보이지만 늘 내면은 뜨겁게 흐르던 소소하게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간 나이고 싶다. 귀한 부모님의 자식이었던 나는 한 사람의 아내요, 두 아이의 엄마로, 마음을 나누던 친구로 그렇게 살아 갈 것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 지금도, 내가 죽어서도 강처럼 잔잔히 잊혀 지지 않고 흐르고 싶다. 🌊